

순천만~정원 연계 '봉화산 둘레길' 14km 개통

104억 들여 조성... 도시 전체 정원화

청춘 데크길 마련·죽도봉에 전망대 설치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과 연계해 순천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둘레길이 개통됐다.

순천시는 지난 29일 봉화산 죽도봉 주차장에서 정원도시 청사진 선포와 함께 봉화산 둘레길 개통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용당동과 조곡동, 생복동, 조례동, 서면 등 5개 지역과 접한 봉화산의 3부 능선에 총 104억원의 예산을 들여 14km의 길이

의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 자연 지형에 맞는 평지형태로 조성된 둘레길은 도심 사이사이에 22개 길이 있어 가족과 연인, 노약자, 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걸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순천만~순천만정원~동천장대공원~죽도봉을 연결하는 '청춘 데크길'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동천에서 죽도봉과 '봉화산 둘레길'을 오를 수 있도록 했다.



■ 순천 '봉화산 둘레길' 개념도
▲ 순천시청 O
봉화산
▲ 순천만정원
▲ 순천만

시키는 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심 중앙에 위치한 봉화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 지난해부터 봉화산 3부 능선에 '봉화산 둘레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도심 한중인을 가로지르는 동천과 연결된 '봉화산 둘레길'은 동천 장대공원에서 죽도봉을 연결하는 '청춘 데크길'과 이어진다.

'청춘 데크길'은 데크길 579m와 흙길 340m, 일방로 226m 구간으로 쉽고 간편하게 죽도봉으로 오를 수 있게 했다.

시는 안내 표지판, 화장실, 휴먼지털이 기구, 의자 등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죽도봉 강남

정에 1층 카페, 2층 체험 공간, 3층 전망대를 설치했다.

'둘레길' 1코스는 죽도봉에서 업동저수지, 2코스는 업동저수지에서 망북마을, 3코스는 망북마을에서 봉화그린빌, 4코스는 봉화그린빌에서 죽도봉까지 각각 이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봉화산 둘레길" 완공으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왔다"면서 "앞으로 순천만에서 순천만 정원,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계시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매개체역할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예정열·김은총기자 ejkim@

목포서 '봄꽃 향연' 펼쳐진다

5~6일 유달산 꽃축제

관광시설 50% 할인도

목포 유달산 꽃 축제가 오는 5~6일 이틀간 목포시 유달산과 로데오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희망나눔, 봄꽃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45개의 체험·공연·전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 대표 프로그램은 유달산 꽃길 걷기와 '유달산 사랑 둘레길 투어'다. 유달산 꽃길 걷기는 ▲사랑의 꽃길 ▲기쁨의 꽃길 ▲화합의 꽃길 등 3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달산 주차장 입구에서 라이온스 동산 구간은 '사랑의 꽃길'로 정했다. 이 구간은 사회자 유도와 함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걷는다.

라이온스 동산에서 문화의 집 입

구 구간은 '기쁨의 꽃길'로 정했다. 이 구간은 다 같이 목포스타일 음악에 맞추어 말춤을 춘다.

문화의 집 입구~ 달성공원 주차장 구간은 '화합의 꽃길'로 정했다. 이 구간은 참여자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꽃길을 걷는다.

또한 '유달산 사랑 둘레길 투어'(길이 2.5km)는 달성공원→달성사→유선각→일등바위→이등바위→혜인여고 뒷길→조각공원→자생식물원→달성공원을 한바퀴 돋는다. 둘레길 투어는 유달산 꽃곳에 숨은 명소들을 소개하고, 완주자에게는 기념품도 지급한다.

한편 축제기간 동안 어린이 바다 과학관을 비롯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자연사박물관, 목포문화관 등 관내 관광시설 관람료가 50% 할인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4월 대표 전통술 '해남 진양주'

맛과 향이 부드러워 술에 약한 남성이나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해남 진양주'가 4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술로 선정됐다.

진양주는 조선시대 왕이 마시던 술로 그 기원은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혼종 때 궁중에서 어주(御酒)를 빚던 궁녀 최씨가 궁을 나가 뒤 사관 벼슬을 살다 영암으로 낙향한 관간김씨 소실로 들어가 김씨의 손녀에게 술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줬고 그 손녀가 해남 계곡면 덕정리로 시집 가면서 해남 임씨 집안이 진양주의 대를 잇게 됐다.

이 술은 1994년 전통주 분야에서는 최초로 전남도 무형문화재(제25

호)로 지정된 최옥립씨가 빚은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주와의 원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무런 점을 놓아도 끊임없이 찹쌀과 누룩만으로 빚는 데도 단맛이 나 꿀을 넣은 것으로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는 찹쌀 중의 전분이 분해돼 나오는 포도당이 미쳐 술이 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 단맛을 내는 것으로 여성에게 어울리는 술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유기농 막걸리 '만월' 본격 시판

전남도가 막걸리 고급화와 통일된 브랜드 사용 등 막걸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유기농 막걸리 공동브랜드 '만월'(사진)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공동브랜드 '만월'은 지난해 특히 청에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강진 병영주조장과 고흥 청정영농조합법인에 브랜드 사용권을 허가했다. 강진 병영주조장에서 제조한 '만월' 막걸리가 1일부터 본격 시판된다.

병영주조장은 반세기(57년) 동안 오로지 전통술 제조에 힘써온 곳으로 국내외 주류품평회 수상 등 국내에서 손꼽는 최고의 술도가로 인정



받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내 대규모 식품박람회장을 비롯해 도내 축제장, 대형 마트 등에서 업체와 공동으로 시음회와 판촉활동을 하는 등 만월 브랜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도내 막걸리 생산업체들이 유기농 막걸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등 막걸리를 고급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SJA 리인이 이름난 순천만을 깃발로는 국내 최초로 2006년 1월 런시트협약에 등록했으며, 국가 명승지 41호로 지정됐다.

《순천시 제공》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수익 창출

모두 가능합니다.

성공의 비결! 황칠에 투자 하십시오. 투자자 상담 환영!

처음 식당을 창업하시는 사장님

기존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간 맹 문의 061 864 5788

